

ISSUE REPORT

데이터 경제의  
새물결,  
혁신 사례



VOL 04

# 데이터로 숨은 사용자를 찾는 금융기업들

# 데이터로 숨은 사용자를 찾는 금융기업들

글 | 이지현 IT전문기자 j.lee.reporter@gmail.com / 우창완 선임연구원 woo@nia.or.kr

흔히들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 '석유'라는 비유를 쓴다. 발견하고 정제하고 팔면 수익을 크게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금융업계 데이터는 이러한 석유 비유에 특히 잘 맞는 분야다. 그 양도 많으면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감한 정보가 워낙 많이 포함돼 있어, 활용하기 쉽지 않는 데이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시장이 성장하면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형 IT 기업, 전통 금융기업까지 금융 데이터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 속에서 흥미로운 데이터 사례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

## 은행의 꽃, 대출시장에 몰리는 데이터

핀테크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는 '대출'이다. 대출은 예로부터 은행에 큰 수익을 남겨주던 핵심 서비스였다. 그래서 P2P대출부터 인터넷은행 대출까지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때 데이터는 새로운 신용평가 기준을 만드는데 주로 활용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신용평가 기준은 기존 대출 절차가 느려 불편을 느끼던 사용자나 전통 금융 서비스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던 사용자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가령 타라<sup>1</sup>라는 핀테크 대출 기업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와 전화 로그 기록, 앱 사용기록, 쇼핑, 위치 정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신용도를 파악한다. 전화 횟수나 전화번호부에 적힌 이름 형태 등을 분석해 상환능력이 더 높은 사용자를 골라내는 식이라고 한다.<sup>2</sup> 타라는 금융 서비스가 발전되지 않은 케냐, 필리핀, 멕시코, 인도 같은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대출은 10~500달러 수준의 소액 규모만 제공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서비스로 유명한 캐비지(Kabbage)<sup>3</sup>는 기업의 판매기록, 인터넷 평점, 소셜미디어 참여수준, 온라인 결제 내역 등을 이용해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sup>4</sup>

최근에는 대형 금융 기업과 IT 기업들이 서로 협업해 대출 상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상품개발이나 새로운 고객 유치를 위해서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올해 6월 아마존과 협력해 새로운 대출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sup>5</sup> 이 대출은 아마존에 입점한 소규모 판매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아마존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아마존 랜딩(Amazon Lending)’에서 확장된 서비스이다. 여기서 신용평가는 사업계획서, 부동산 담보나 금융기록이 아니라 오로지 아마존 물류 창고의 재고량이나 판매 데이터를 활용한다. 2019년 기준 총 10조 달러(우리돈 약 1경2천조 원) 규모가 아마존랜딩으로 대출되었다고 하며 이용 고객수는 1만 4천여개<sup>6</sup>라고 하니 그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1 <https://tala.co/>

2 Where Cellphones Are Lifelines, Start-Ups Spy Opportunities, 2016년 2월, <https://www.nytimes.com/2016/11/13/business/cellphones-lifelines-start-ups-spy-opportunities.html>

3 <https://www.kabbage.com/>

4 <https://en.wikipedia.org/wiki/Kabbage>

5 <https://sellercentral.amazon.com/forums/t/marcus-by-goldman-sachs-line-of-credit-for-amazon-small-business-sellers/642610>

6 <https://sellercentral.amazon.com/forums/t/marcus-by-goldman-sachs-line-of-credit-for-amazon-small-business-sellers/642610>

CNBC에 따르면<sup>7</sup> 앞으로 두 회사는 대출상품의 연간 이자율을 6.99~20.99%로 제공하고, 신용 한도는 최대 100만 달러(우리돈 약 12억 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골드만삭스는 해당 수천 명의 아마존 판매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 모델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라인의 경우, 금융 서비스에 자사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라인의 금융 자회사인 라인 파이낸셜과 미즈호 은행은 ‘라인 크레딧(LINE Credit)’이라는 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했는데<sup>8</sup> 이들은 2019년 ‘라인 스코어(LINE Score)’이라는 자체 신용점수를 개발하고 이에 맞게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sup>9</sup> 라인 스코어를 활용하는 사용자에게 명품백 무료 대여, 고급차 렌트 할인 이벤트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라인 스코어 점수는 라인 앱에서 진행되는 15가지 설문조사를 답해야 계산된다. 주로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형태, 세대원수, 직업 종류 등의 개인 정보를 묻는다.<sup>10</sup> 라인 앱 이용 패턴도 활용한 다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나 통화의 내역은 신용 점수 계산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소개한다. 라인스코어는 담보없이 이용가능한 대출 서비스 ‘라인 포켓머니(LINE Pocket Money)’에도 이용된다.<sup>11</sup> 이런 서비스는 금융 기록이 별로 없던 사용자에게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포용적 금융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라인 크레딧 기술들은 사회 초년생, 가정주부나 태국, 인도네시아같은 동남아시아 거주 사용자에게 적극 확대되고 있다.<sup>12</sup>

7 Amazon unveils small business credit line with Goldman in latest tie-up between tech and Wall Street, 2020년6월, <https://www.cnbc.com/2020/06/10/amazon-and-goldman-sachs-unveils-small-business-credit-lines-up-to-1-million.html>

8 LINE Financial 51%, 미즈호 은행 34%, 오리엔트 코퍼레이션 15%의 출자로 설립된 은행이다. <https://linecorp.com/en/pr/news/en/2019/2771>

9 [Japan] LINE Launches Proprietary Scoring Service LINE Score to "Enrich Daily Life", 2019년 6월, <https://linecorp.com/en/pr/news/en/2019/2771>

10 <https://news.livedoor.com/article/detail/16716629/>

11 <https://linecorp.com/en/pr/news/en/2019/2886>

12 신용 점수 서비스, LINE Score를 소개합니다!, <https://engineering.linecorp.com/ko/blog/introduce-credit-score-service-line-score/>

## LINE Score



linecorp.com

흥미롭게 라인은 2019년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증권과 제휴해 ‘라인 증권’<sup>13</sup>이라는 주식거래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노무라 증권은 해당 제휴로 젊은 사용자를 끌어오는 것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의 데이터를 얻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18년 진행된 모리타 도시오 노무라 증권 사장은 인터뷰에 따르면 노무라 증권의 고객 70%는 50세 이상이며, 이들이 보유한 계좌수는 531만 개다. 반면 라인은 월간 활성 사용자가 7800만 명인데 이들 중 75%가 50세 미만이라고한다. 두 기업은 서로 다른 사용자를 기반으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sup>14</sup>

핀테크 업계를 이끄는 대표 기업 알리바바도 위와 비슷한 전략을 이미 오래전부터 구사했다. 특히 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사실 이는 다른 국가에선 개인 정보 보호 및 검열에 대한 비판 때문에 좀처럼 시도하지 않는 방식이다.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파이낸셜(Ant Financial)은 그 밑에 자산 운용관리 서비스 ‘앤트 포춘(Ant Fortune)’, 신용평가 플랫폼 ‘즈마신용(Zhima Credit)’, 인터넷 은행서비스 ‘마이뱅크(My Bank)’를 산하에 두고 금융

13 <https://linecorp.com/ja/pr/news/en/2019/2890>

14 아마존 벅크가 온다 p.220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중 즈마신용<sup>15</sup>에서 알리바바 전체 계열사의 정보를 적극 활용해 사용자의 신용도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알리바바 산하 쇼핑몰 기반의 실명 인증 사용자 3억 명과 3700만 중소기업들이 판매 및 구매 내역 그리고 알리페이 결제 내역들이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sup>16</sup> 이러한 데이터로 학생이나 저임금 노동자같이 신용카드 사용 이력이 없거나 은행 대출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단순히 데이터 내용이 아니라 신용도를 가능해주는 요소를 데이터 속에서 찾고자 한다. 인터넷 쇼핑 이용횟수, 전기료 완납 기록, 주거환경이 안정정적이거나 동일한 핸드폰 번호를 오랫동안 사용한 이력 등을 신용평가 요소에 넣고 있다.<sup>17</sup> 리 잉윤(Li Yingyun) 즈마신용 기술 디렉터는 쇼핑 습관이란 생활방식도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테면 하루에 비디오 게임을 10시간 하는 사용자라면 나태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기저귀를 자주 사는 사람이라면 자녀가 있을 것을 예상해 좀 더 책임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평가한다.<sup>18</sup> 2015년 기준 즈마신용에서 활용하는 데이터 중 30~40%는 알리페이와 알리바바 계열사 쇼핑몰에서 가져오고, 나머지는 정부와 타기업에서 가져왔다고 밝힌 바 있다.<sup>19</sup> 싱가포르의 한 언론사는 “중국公安부와 국세청 데이터를 즈마신용에서 활용한다”라며 “싱가포르나 유럽지역을 방문하기 위한 여행비자 발급과정에서도 즈마신용 데이터가 사용된다”라고 그 영향력을 설명하기도 했다.<sup>20</sup>

15 자체 영어로 Sesame Credit라고 부르기도 한다

16 <https://www.alibabagroup.com/en/news/article?news=p150128>

17 Ant Financial Unveils China's First Credit-Scoring System Using Online Data, 2015년 1월, <https://www.alibabagroup.com/en/news/article?news=p150128>

18 Ant Financial Subsidiary Starts Offering Individual Credit Scores, 2015년 5월, <https://www.caixinglobal.com/2015-03-02/ant-financial-subsidiary-starts-offering-individual-credit-scores-101012655.html>

19 <https://www.caixinglobal.com/2015-03-02/ant-financial-subsidiary-starts-offering-individual-credit-scores-101012655.html>

20 Sesame Credit: Data-Driven Credit Scoring, 2016년 1월, <https://fintechnews.sg/1302/fintech/sesame-credit-data-driven-credit-scoring/>

## 통찰력을 얻기 위한 대체데이터

기술 분야 곳곳에서 트렌드를 파악하거나 미래를 예측해주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 머신러닝 기술과 데이터 활용은 필수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특히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이나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는 데이터들에 대한 인기가 높다. 이러한 데이터를 대체 데이터(alternative data)라고 부른다. 지리 데이터, 온라인 검색 기록, 소비 트렌드 등이 대체 데이터에 속한다. 실제로 투자회사들은 대체데이터에 연간 수억 달러를 쓴다고 한다.<sup>21</sup> 나스닥같은 증권거래서도 대체 데이터를 공급 기업을 직접 인수하고<sup>22</sup> 무디스<sup>23</sup>나 S&P<sup>24</sup>같은 대형 신용평가 기업들도 대체 데이터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인공위성 및 항공 사진은 대표적인 대체 데이터다. UBS 투자은행에 근무하던 증권 분석가가 월마트 주차장을 항공사진으로 분석하고 이후 차 대수를 세어 기업 실적을 분석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sup>25</sup> 데카르트랩(Descartes Labs)<sup>26</sup>과 오비탈 인사이트(Orbital Insight)<sup>27</sup>같은 기업들도 항공사진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투자 기업이나 정부 관계자의 결정을 돕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정밀한 이미지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 그리고 자체 분석 기술을 결합해 원유 저장량, 자동차나 원자재 공장에 쌓인 재고량을 파악해 고객에게 원하는 분석자료를 주고 있다.

21 <https://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19/05/stock-value-satellite-images-investing/586009/>

22 2018년 퀀들이라는 데이터 기업을 인수했다. <https://www.nasdaq.com/about/press-center/nasdaq-acquires-quandl-advance-use-alternative-data>

23 <https://www.moodyanalytics.com/about-us/press-releases/2019-11-01-moodys-analytics-launches-credit-sentiment-score-solution>

24 <https://www.cfo.com/technology/2019/10/alternative-data-drives-sp-globals-growth/>

25 날씨 알려주던 인공위성의 진화 금융·유통 구조 바뀌, [http://weekly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1/2017090101832.html](http://weekly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1/2017090101832.html)

26 <https://www.descarteslabs.com/>

27 <https://orbitalinsight.com/>

프리데이터(PreData)<sup>28</sup>라는 기업은 지리적인 환경과 정치 상황이 금융상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180개 나라에서 회자되는 환율, 주식, 경제 뉴스 등 수천 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터링 해서<sup>29</sup> 사용자에게 특정 키워드에 대한 정보나 알람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ESG 투자와 관련된 대체 데이터가 주목받고 있다. ESG투자는 투자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투자를 말한다.<sup>30</sup>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기업,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기업, 기업 내부 구조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기업에 더 가치를 두어 투자하는 방식이다. 그런 ESG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선 전통적인 실적발표나 기업 소식과는 다른 데이터, 즉 대체데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한 흐름에서 ESG 항목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주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카본 델타(Carbon Delta)<sup>31</sup>는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기후변화 상황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는 기업이다. 이들은 2만2천여 개가 넘는 상장 기업을 분석하고 있는데, 재무 데이터, 날씨 데이터, 통계, 과학연구 자료들을 통합해서 날씨 변화, 규제 도입, 기술 변화 같은 새로운 상황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리스크 혹은 이득 비용을 계산해준다.<sup>32</sup> 예를 들어 ‘극심한 폭염이 발생시 아시아 지역에서는 전자 산업 경제가, 캐나다 지역에서는 식품 소매업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같은 결론을 내어준다.<sup>33</sup>

28 <https://www.predata.com/products/>

29 <https://www.cmegroup.com/market-data/predata/faq-predata.html#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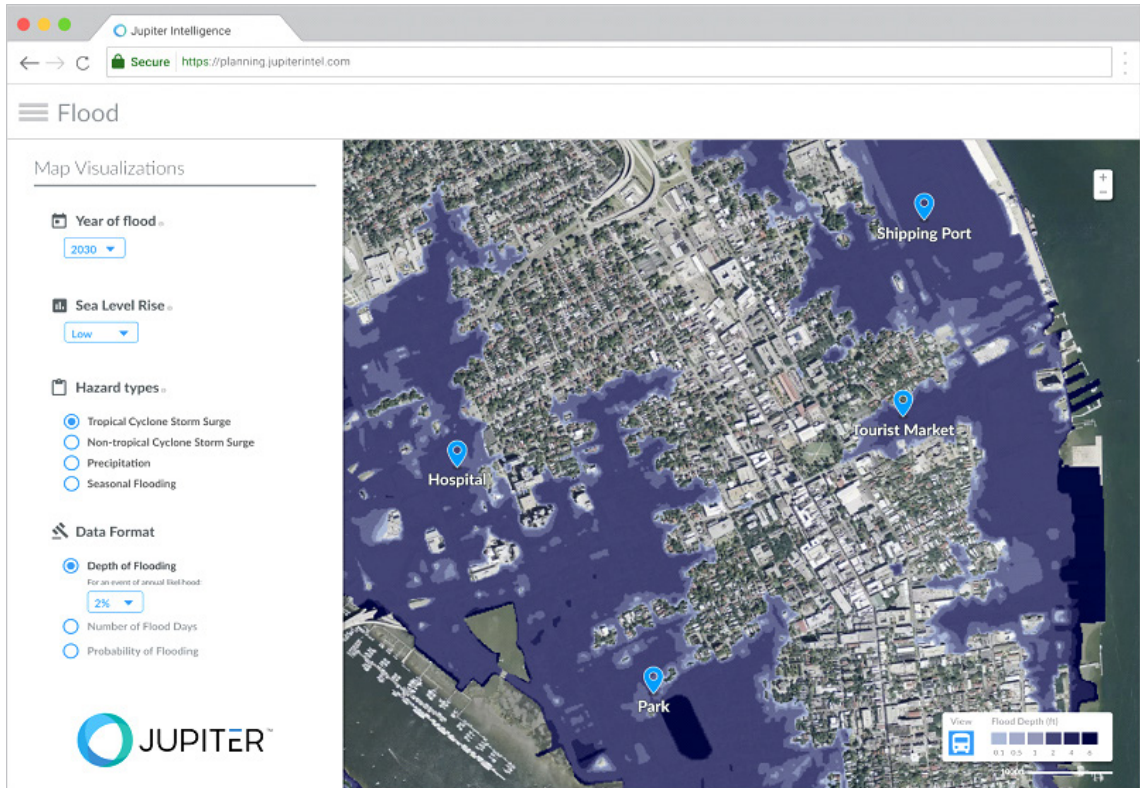
30 <https://www.fidelity.co.kr/insight-and-learning/learn-about-investing/esg-investing>

31 현재는 MSCI에 인수되어 자회사 형태로 존재한다. <https://www.carbon-delta.com/>

32 <https://www.carbon-delta.com/solutions/methodology/>

33 Changing course 보고서, 2019년 5월, p.77 table 24 내용 [https://www.preventionweb.net/files/65305\\_tcfcdchangingcourse.pdf](https://www.preventionweb.net/files/65305_tcfcdchangingcourse.pdf)

## [주피터 홍수관련 예측 시스템]



[jupiterintel.com/wp-content/uploads/2019/11/Jupiter\\_Intelligence\\_FloodScore\\_Overview.pdf](https://jupiterintel.com/wp-content/uploads/2019/11/Jupiter_Intelligence_FloodScore_Overview.pdf)

주피터 인텔리전스<sup>34</sup>도 기업도 비슷하게 기후변화 데이터를 금융자산에 연결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항공 사진부터 토지나 수면에 부착된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고,<sup>35</sup> 향후 6개월부터 50년간 특정 지역에 미칠 리스크를 분석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30년 태풍이 뉴욕 맨해튼에 지나갈 경우, 침수가 날 가능성과 관련 지역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기지 투자 상품이나 도시계획, 부동산 및 건설 기업 관련 담당자들에게 해당 기술과 데이터를 적극 판매하고 있다.

<sup>34</sup> <https://jupiterintel.com/>

<sup>35</sup>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8/02/12/1339285/0/en/Jupiter-Launches-Climate-Data-Analytics-and-Technology-Platform-to-Predict-and-Manage-Weather-and-Climate-Change-Risks.html>

## [클래러티 AI 예시]



[clarity.ai/product](https://clarity.ai/product)

클래러티 AI(Clarity AI)<sup>36</sup>는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해주는 서비스다. 이때 핵심은 ESG 요소를 반영한 부분이다. 이를테면 아마존 주식 정보를 검색하면, 실적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에 끼친 정보를 수치화하고 시각화해서 보여준다. 이때 클래러티AI가 정한 기준 외에 사용자 스스로 중요시는 부분의 비율을 조절해 사용자마다 선호하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고 있다.

트루벨류랩(Truvalue Lab)<sup>37</sup>도 상장 기업 정보를 분석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때 ESG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업 평가에 반영하는 게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10만 개가 넘는 웹 정보를 활용한다고 설명한다.<sup>38</sup> 자연어 분석 기술로 웹과 기사 데이터를 이해하고 ESG 평가영역에 변화를 주는 주요 사건들을 수치화하고 시각화하는 해서 경쟁력을 만들고 있다.

ESG 영역을 중시하는 전략은 젊은 고객을 끌어오는데 유용해지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20-30대들이 윤리적 소비를 선호하는 편인데<sup>39</sup> 이러한 문화가 투자 활동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sup>36</sup> <https://clarity.ai/>

<sup>37</sup> <https://www.truvaluelabs.com/>

<sup>38</sup> <https://www.truvaluelabs.com/faq>

<sup>39</sup> 소비 중심에 선 밀레니얼 “가격보다 가치…착해야, 잘 산다”, 머니투데이, 2020년 1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415352167126>

것이다. 일례로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기업만 투자하는 가마쿠라투자신탁의 경우 고객 중 70%<sup>40</sup>가 20~40대로 알려져있다. 이 기업은 투자처의 상황을 사람·사회·기술별로 구성한 35개 평가 항목에 따라 검토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 데이터 민주화를 돕는 금융 분석 도구들

금융업계에선 언제나 정보에 민감하다. 실적 발표, 경제 뉴스 외에도 각종 보고서나 기업분석자료나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 분석도구를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블룸버그나 로이터 단말기 같은 기술이다. 그런데 이런 기기들의 비용은 개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비싼 수준이어서<sup>41</sup> 개인보단 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자연스레 좋은 정보는 개인보다 기관이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트리니오(Intrinio)<sup>42</sup>는 ‘금융 데이터를 민주화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탄생한 기업이다. 과거 블룸버그 단말기에서 모든 데이터를 한번에 제공했다면 인트리니오는 원하는 데이터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할건지 과거 통계 데이터를 이용할건지 고르면 되고, 그 안에서도 주가 데이터, 뉴스 데이터 등 항목을 세부적으로 조절가능하다. 이렇게 이용데이터가 좁혀지니 이용료도 자연스레 낮춰졌다. 원하는 거래소만 선택해 데이터를 고르거나 기존에 없는 조합이라도 맞춤형으로 자신만의 데이터 이용 조합을 만들어 이용한 만큼 비용을 내면 된다. 개인고객이라면 1년에 125달러(우리돈 약 14만 원)이고, 기업 고객의 경우 일 년에 325달러(38만 원) 수준의 비용으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sup>43</sup>

40 [똑똑!스튜어드십코드] © “좋은 기업 돕기위해 투자한다”, 2018년 8월, <http://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18/07/25/0030>

41 비용절감 바람에 밀려나는 블룸버그 금융정보, 중앙일보, 2017년 3월, <https://news.joins.com/article/21419828>

42 <https://intrinio.com/>

43 <https://intrinio.com/prices>

인트리니오는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생성하지 않고 나스닥같은 외부 데이터 벤더와 협업해 데이터를 끌어다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때 개발자나 데이터과학자가 처리하기 좋게 미리 데이터를 가공해 경쟁력을 만들었다. 데이터 벤더가 제공한 데이터를 종류별로 다시 잘 나누어 API나 CSV파일 형식으로 다시 지원하는 형식인데, 그 항목이 300개가 넘는다. 사용자 입장에선 여러 사이트에 퍼져 있던 데이터를 통합해서 검색하거나 엑셀, CSV같은 파일 등으로 바로 다운로드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특징 덕에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나 시장 분석 및 알고리즘 테스트가 필요한 연구기관들이 인트리니오의 주 고객이 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인트리니오 사용자 중 설립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고객은 250개<sup>44</sup>가 넘었다고 한다.

[인트리니오 서비스 예시]

### Data Point

Returns the most recent data point for a selected identifier (ticker symbol, stock market index symbol, CIK ID, etc.) for a selected tag. Income statement, cash flow statement, and ratios are returned as trailing twelve months values. All other data points are returned as their most recent value, either as of the last release financial statement or the most recent reported value.

BASE URL: [https://api.intrinio.com/data\\_point](https://api.intrinio.com/data_point)

---

### Live Data

[SWITCH TO SAMPLE DATA](#)

**identifier**  
An identifier, which can be a security ticker, SEC CIK ID, FRED Series ID, etc.  
[more](#)

**item**  
An item, which can be a data tag or a special code.

IDENTIFIER

ITEM

**URL**

[https://api.intrinio.com/data\\_point?identifier=SNAP&item=last\\_price](https://api.intrinio.com/data_point?identifier=SNAP&item=last_price)

Execute

**Results**

```
{
  "identifier": "SNAP",
  "item": "last_price",
```

\* 출처 : 인트리니오 홈페이지

44 <https://stpetecatalyst.com/2018-in-review-rachel-carpen-ter-intrin- io/>

[이스티마이즈 기여자들이 정보를 입력하는 예시 - 넷플릭스의 다음분기 주당순이익이나 매출값을 입력할 수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Estimize website interface for NFLX. It includes a navigation bar with categories like CALENDAR, EQUITIES, ECONOMICS, RANKINGS, LEAGUES, and EARNINGS EDGE.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NFLX Earnings Expectations' with a table of estimates for various quarters from 2016 to 2019. A 'Make EPS Estimates' section allows users to input their own estimates for EPS and Revenue for the next quarter (Q2 '18) and compare them to the consensus. A 'Historical EPS Consensus' section shows a bar chart of historical data from Q1 '16 to Q1 '19.

	FQ2 '16	FQ3 '16	FQ4 '16	FQ1 '17	FQ2 '17	FQ3 '17	FQ4 '17	FQ1 '18	FQ2 '18	FQ3 '18	FQ4 '18	FQ1 '19
<b>Estimize</b>	0.03	0.08	0.15	0.38	0.18	0.33	0.43	0.65	0.73	0.72	0.77	1.12
# of Estimates	550	472	457	461	468	468	443	419	121	79	46	9
Wall St	0.02	0.06	0.13	0.38	0.16	0.32	0.41	0.63	0.80	0.71	0.73	1.14
<b>Actuals</b>	0.09	0.12	0.15	0.40	0.15	0.29	0.41	0.64				Projected YoY
YoY Growth	50%	71%	114%	567%	67%	142%	173%	60%	433%	155%	83%	89%
<b>You</b>	0.04	0.10	0.15	0.40	0.20	0.34	0.42	0.63	0.80	0.74	0.75	1.21
Points	+10	+16	+25	+25	-4	-3	-1	+19				

\* 출처 : 이스티마이즈 홈페이지

이스티마이즈(Estimize)<sup>45</sup>의 클라우드소싱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기존 기관 분석가들이 놓치는 정보를 판매하고 있다. 보통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여러 전문가들은 해당 실적의 예측치를 기사나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다. 이 예측은 소위 말하는 월가에 근무하는 분석가들이 주도하는데, 이스티마이즈는 이런 분석이 충분한 검증과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렇게 해선 만든 것이 기업 전망 정보를 남들과 공유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10만 명이 넘는 헤지펀드전문가, 브로커, 개인 분석가가 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예측 정확도가 기존 전통 데이터들보다 최대 15%까지 높다고 설명한다.<sup>46</sup>

45 <https://www.estimize.com/>

46 <https://www.estimize.com/about>

이스티마이즈는 누구나 무료로 가입해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많은 데이터를 조회하려면 그만큼 스스로 분석가가 돼서 예측 데이터를 미리 입력이 많이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아마존이나 MS같은 기업들의 주당순이익이나 매출액을 미리 예상해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한 사람의 정보는 익명처리된다.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는 다시 시각화되고, 업계 애널리스트의 평가와 이스티마이즈의 평가를 비교해서 볼 수 있다. 이스티마이즈의 자체 평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 실적을 잘 예측한 사람이나 정보를 많이 입력한 사람에게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 이스티마이즈에 모인 데이터는 다시 외부 금융기관에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는 중이다.

[특정 기업의 예측 매출값을 월가 평균값과 이스티마이즈 플랫폼 내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게 만든 기능]



\* 출처 : 이스티마이즈 홈페이지

## 데이터 표준을 만들려는 노력

새로운 기술이 기존산업에 유입될 때에는 기술을 통합하고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 기업들은 연합체를 만들어 공동 기술을 만들곤 하는데, 금융기업들도 그러한 움직임에 조금씩 투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핀테크 오픈소스 재단(Fintech Open Source Foundation, FINOS)<sup>47</sup>가 있다.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 모건, UBS 등 글로벌 주요 금융 기업부터 깃허브, 레드햇, 클라우드나인같은 기술기업<sup>48</sup>까지 함께 하고 있는 이 단체는 비영리 성격으로 금융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한 기술들은 100개가 넘으며, 특히 데이터 관련 기술들이 많다. 데이터 표준구조<sup>49</sup>를 함께 만들거나 개별적으로 만든 기술을 FINOS에 공개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알로이<sup>50</sup>는 골드만삭스가 주도적으로 만든 데이터모델링 기술이다. 2019년말에 공개된<sup>51</sup> 이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 분석 구조를 구성하고 배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한다. 여기에 쓰이는 자체 모델링 언어 ‘퓨어’<sup>52</sup>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오픈소스 기술은 아니지만 골드만삭스는 최근 수십년간 내부 핵심자산으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오픈API 형식으로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일명 ‘증권 데이터베이스(Securities DataBase, SecDB)’라고 부르는 데이터다. 이 데이터로 280만개 포지션과 50만개 경제상황<sup>53</sup>을 고려해 특정 금융 상품의 가격이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기술은 기업용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sup>54</sup>

47 <https://www.finos.org/>

48 <https://www.finos.org/members>

49 <https://fo.finos.org/docs/fo-intro>  
<https://finosfoundation.atlassian.net/wiki/spaces/DT/pages/656834673/Security+Reference+Data+Project>

50 <https://alloy.finos.org/>

51 <https://www.finos.org/press/goldman-announces-pure-alloy-contribution>

52 <https://www.finos.org/alloy>

53 슬라이드11, <https://www.goldmansachs.com/investor-relations/presentations/archived/db-presentation-6-2-15.pdf>

54 <https://www.goldmansachs.com/our-firm/history/moments/1993-secdb.html>

씨티그룹도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기술에 쓰이는 라이브러리 ‘데이터허브’<sup>55</sup>를 공개했고, 이를 FINOS에서 관리하고 있다.

FINOS가 대형 금융기업이 주도하는 기업이라면 핀테크 샌드박스<sup>56</sup>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데이터 기술 개발에 힘쓰는 비영리단체다. 이곳에선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사업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좀 더 쉽게 낮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단체에는 S&P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다우존스, 콰들(Quandl), 통신사 AP 등 30여개 데이터 제공 기업<sup>57</sup>이 파트너사로 등록되었으며, 아마존웹서비스, 오픈핀, 핀테크스튜디오같은 인프라기업도 파트너사<sup>58</sup>로 들어가 있다.

핀테크 샌드박스는 스타트업에게 지원서를 받고,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게 파트너사 데이터와 인프라를 6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때 별도의 수수료를 낼 필요 없고, 파트너 기업에게 따로 금전적 형태의 보상을 줄 필요없다. 대신 핀테크 샌드박스가 개발하고 있는 오픈소스 기술에 기술을 의무적으로 기여해야 한다.<sup>59</sup> 데이터를 지원해준 대가로 공동에 이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술을 만들어달라는 의미다. 그런 이유로 핀테크 샌드박스에 지원하는 스타트업은 CTO가 존재하고 데이터 기술 활용능력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에 따로 파트너사 앞에서 사업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주고 있다.

55 <https://github.com/finos/datahub>

56 <https://fintechsandbox.org/>

57 <https://fintechsandbox.org/data-partners>

58 <https://fintechsandbox.org/infrastructure-partners>

59 <https://fintechsandbox.org/how-to-apply>

## 참고문헌

-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함유근, 이종석 저, 2019 [dfrc.kif.re.kr/wp-content/uploads/2019/09/%EC%A4%91%EA%B8%88%EB%A6%AC-%EB%8C%80%EC%B6%9C-%ED%99%9C%EC%84%B1%ED%99%94%EB%A5%BC-%EC%9C%84%ED%95%9C-%EB%B9%85%EB%8D%B0%EC%9D%B4%ED%84%B0-%ED%99%9C%EC%9A%A9-%EB%B0%A9%EC%95%88.pdf](https://dfrc.kif.re.kr/wp-content/uploads/2019/09/%EC%A4%91%EA%B8%88%EB%A6%AC-%EB%8C%80%EC%B6%9C-%ED%99%9C%EC%84%B1%ED%99%94%EB%A5%BC-%EC%9C%84%ED%95%9C-%EB%B9%85%EB%8D%B0%EC%9D%B4%ED%84%B0-%ED%99%9C%EC%9A%A9-%EB%B0%A9%EC%95%88.pdf)
- Stat of Fintech: Invest & Sector Trends To Watch, CBinsigt 저, 2020 [thebasispoint.com/wp-content/uploads/2020/02/CB-Insights\\_Fintech-Report-Q4-2019.pdf](https://thebasispoint.com/wp-content/uploads/2020/02/CB-Insights_Fintech-Report-Q4-2019.pdf)
- 아마존 은행가 온다, 저자 다나카 미치아키 저, 류두진, 출판사:21세기북스, 2020.
- 핀테크 에센셜, 저자 이근주, 출판사:블록체인, 2020.

VOL

04

# 데이터로 숨은 사용자를 찾는 금융기업들

**작성** IT전문기자 **이지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 정책기획팀 **우창완** 선임

**기획**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 **박원재** 본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 정책기획팀 **이정아** 팀장

**문의** j.lee.reporter@gmail.com / woo@nia.or.kr

**주소** 대구 광역시 동구 첨단로 53(우 41068) 한국정보화진흥원

T. 053 230 1114 F. 053 230 1907 www.nia.or.kr

- 이 보고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수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ICT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지식정보사회의 국가발전전략연구 사업)의 결과입니다.
-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